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폐막, 14만 관객 매료시키며 ‘참신성, 독창성’ 에서 높은 평가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퍼포먼스 <동요>. 작가: 제인 진 카이젠. 서울시립미술관,
2025. 08. 28. 사진: 홍철기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총 90여 일간 약 14만 관객 다녀가며 11월 23일(일) 성황리에 폐막. 만족도 조사에서 ‘참신성·독창성’ 최고 평가
- 엠마 쿤츠, 힐마 아프 클린트, 루돌프 슈타이너, 백남준, 요셉 보이스 등 미술사의 거장들과 동시대 예술 실천을 연결하고, 그동안 주류 미술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영적 실천과 현대 미술의 관계를 조명하는 예술적 시도
- 현재 문명사적 위기와 맞닿은 “영혼의 고갈, 영적 빈곤”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시대 의식에 부응하면서도 무의식 중 대중에게 내재되어 있던, 갈망하던 주제를 절제된 형식으로 구현. 전문가들의 호평과 함께 향후 대중 친화적 비엔날레로의 도약 가능성 확인

- 2025년 8월 26일 개막한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이 11월 23일 성황리에 폐막하였다. 약 90일간 이어진 이번 비엔날레는 총 141,184명의 관객이 다녀갔으며, 1,400여 명이 응답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시의 '참신성과 독창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팬데믹 종식 직후 개최된 제12회 비엔날레 대비 약 1.5배 증가한 관람객 수는 동시대 문화 예술 경험에 대한 관객의 높은 관심과 수요, 그리고 그 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장소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 비엔날레는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 친화적 행사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중심으로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 네 곳으로 전시를 확장하며, 전시·영화·사운드·퍼포먼스·출판을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문화 플랫폼을 구현했다. 전시에 초대된 50명(팀)의 국내외 작가와 더불어 영화, 사운드 프로그램과 대담, 강연 등 49명(팀) 참여자를 더해 99명(팀)의 창작자·연구자·실천가가 함께했다.
- 2024년, 역대 두 번째 국제 공모를 통해 초청된 13회 비엔날레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는 비엔날레 개막 전 사전프로그램 《강령을 위한 노트》를 통해 서울, 뉴욕, 도쿄, 베를린의 관객 700여 명과 그간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둔 비엔날레의 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시 개막 초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된 퍼블릭 프로그램은 ORTA, 제인 진 카이젠, 이승택, 온다 아키가 준비한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참여 작가들의 라운드테이블과 전시의 주제를 심화하는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 ‘SMB13 X 프리즈 필름 서울 2025’는 9월 1일(월) 개막하여 4일(목)까지 나흘간 비엔날레의 주제와 공명하는 아티스트 필름과 무빙 이미지 작품 12점을 소개하고, 관련한 토크 세션을 함께 진행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로비와 옥상에서 개최된 본 프로그램은 스크린의 마법 같은 힘을 찾은 1,300여 명의 관객들과 또 다른 방식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상징하는 낙원상가에서는 ‘사운드’와 ‘청취’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과 전시 세 편이 소개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소통을 제시하는 이곳에서는 현대 실험 음악의 거장들과 현대미술가들이 감각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소리의 조화, 리듬, 침묵과 박자에 관한 실험과 사유를 제시하였다. 총 1,400여 명의 관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비엔날레 기간 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네 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영화 21편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협력으로 준비된 본 프로그램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장 뤽 고다르,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등 이미지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망자, 무의식과 영성의 세계를 현현하는 작품들이 선별, 상영되어 15주간 1,200여 명의 예술 영화 애호가들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신규 관람객의 유입도 주목할 만하다.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이번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관객 비율은 19.3%로 예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관람객 구성의 변화는 그동안 높게 인식되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비엔날레가 보다 대중 친화적인 행사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 폐막전 진행된 전문가 평가는 시의적인 주제를 깊이있게 연구·환원한 비엔날레 전체 기획이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타 비엔날레와 뚜렷한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 또한 비엔날레 소식과 리뷰를 다룬 200여 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몇몇

주요 매체 역시 프로그램의 실험성과 공공성을 의미있게 조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트리뷰』에서는 “이번 전시에서 제시하는 여성주의는 망상이 아닌 일종의 과학, 따라서 여성은 현대 미술의 근본으로 재편성된다.” 라며, “일반적인 영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예술 역시 세계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영적 실천”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코리아 타임즈』는 “서구 식민주의 틀을 벗어난 채 지속되어 온 철학과 기술들을 되새김질하는 작품들을 동시대의 여성주의적, 생태적, 대안적인 비전을 추구” 하게 하는 전시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지식의 공공 환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막과 함께 SMB 웹 시스템(mediacityseoul.kr)을 공개했다. 그간의 비엔날레 관련 정보와 지식을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램, 웹과 출판물을 아우르는 연구 콘텐츠의 밀거름이 되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어제, 오늘, 내일’을 잇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운영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 디자인에서도 관람 경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이 이어졌다. 예술 경험의 주요한 매개체로 ‘색채’를 제시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장 전반에 ‘컬러 카펫’을 설치해 많은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전시 폐막에 맞춰 ‘컬러 카펫’을 포함한 전시장 내 다양한 기물은 미술관, 대학교, 독립 미술 전시장 등 7개 장소에서 재활용될 예정이며, 전시 구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이번 전시는 홍콩 기반의 공간 디자이너 콜렉티브의 디자인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인 화이트큐브에서 탈피해 색상과 주제에 따라 11개 클러스터로 공간을 나누고, 반투명한 검정 천으로 감싼 ‘미로’ 구조물과 ‘터널’ 공간을 마련하여, 흡입력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신규 제작된 히와 케이, 아노차 수위차콘퐁, 권

병준을 포함한 7명(팀)의 커미션 신작은 동시대를 이해하고 응대하는 기술로서 ‘영혼’의 세계를 깊이 있게 해석하며, 함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었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은 “지난 30여 년간 서울을 대표해 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에 관한 사유와 예술의 실험성을 탐구해 왔으며, 올해는 이러한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장하는 감각과 철학적 사유가 제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찾아주신 모든 관람객과 예술감독팀, 작가, 참여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SMB13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는 이번 비엔날레가 “영성주의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틀에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영적 영역과 예술적 실천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강조하며, “영적 전통이 풍부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맥락 속에서 감각과 기술적 상상력을 함께 사유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의미”라고 덧붙였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SMB 웹 시스템(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엑스(트위터) <https://x.com/mediacityseoul>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https://www.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 서울시립미술관 대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s://sema.seoul.go.kr/>

엑스(트위터) x.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QgRPn

(붙임 1) 첨부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퍼포먼스 〈동요〉. 작가: 제인 진 카이젠. 서울시립미술관, 2025. 08. 28. 사진: 홍철기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투어. 서울시립미술관, 2025. 09. 01. 사진: 홍철기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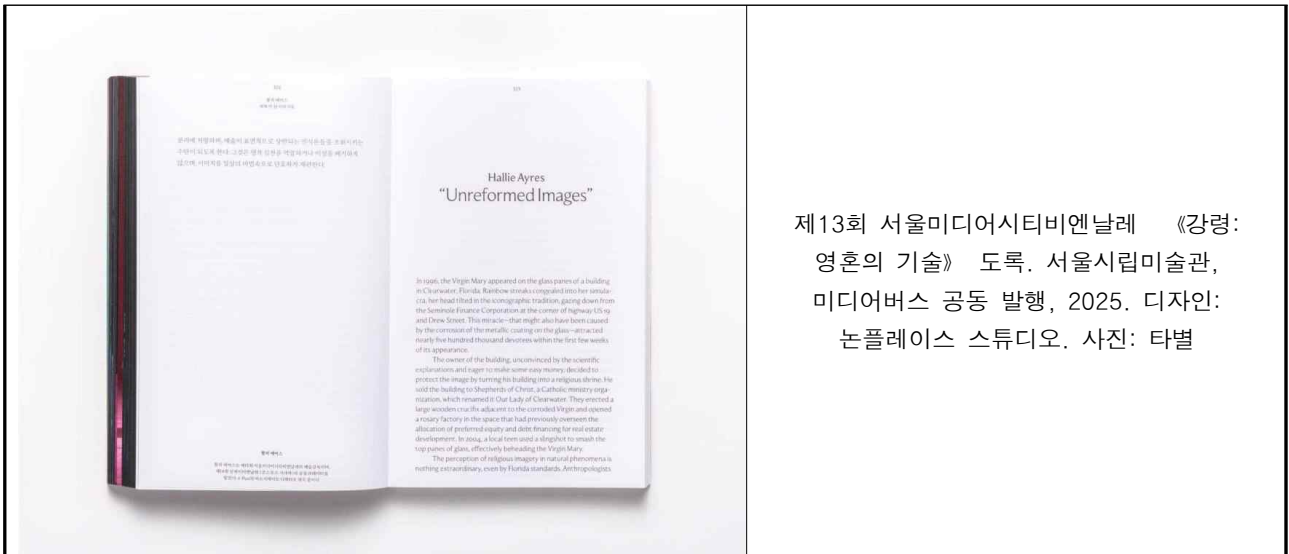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개막식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08. 25. 사진: 홍철기 2025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도록.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 공동 발행, 2025. 디자인: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사진: 타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도록.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 공동 발행, 2025. 디자인: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사진: 타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도록,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 공동 발행, 2025. 디자인:
논플레이스 스튜디오. 사진: 타별

(붙임 2) 전체 참여자 명단

○ 본 전시 (총 50명/팀)

과달루페 마라비야, 권병준, 노무라 자이, 데구치 오니사부로,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루돌프 슈타이너, 뤼실 올랭프 오프, 마누엘 마티유, 마야 데렌, 마이크 켈리, 모하메드 가베르, 박찬경, 백남준, 비올렛 e a, 샤나 몰튼, 수잔 트라이스터, 슈 차웨이, 스카이 호핀카, 아노차 수위차콘퐁, 아밋 두타, 안리 살라, 안민정, 안젤라 수,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 엠마 쿤츠, 온다 아키, 요셉 보이스, 요아킴 뢰스터, 요하나 헤드바, 윙 포 소, 윤형민, 이승택, 인주 첸, 제인 진 카이젠, 조던 벨슨, 조지아나 하우튼, 주역과 예술품, 카라 디테 한센,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코리타 켄트,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 크레이 첸,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타마르 귀마래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하룬 미르자, 히와 케이, 힐마 아프 클린트, ORTA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 사운드룸 (총 16명/팀)

라 몬테 영, 로리 스피겔, 리징쑹 (딕슨 디), 마타나 로버츠, 메레디스 영-사우어스, 발터 스페타크, 브레이어 P-오리지, 아니아 록우드와 루스 앤더슨, 안토니아 노바츠카, 야라 메카웨이, 온다 아키, 이아름, 제리 헌트, 조시 드 올리베이라, 최정희, 칼 미카엘 폰 하우스볼프

○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총 21명)

가와세 나옴, 니나 멘케스, 라울 루이즈, 로베르토 로셀리니, 루이스 부뉴엘, 마르셀 카뮈, 마야 데렌, 마티 디옵, 슐레이만 시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알리체 로르와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이장호, 장뤽 고다르, 카롤린 데오다, 카밀로 레스트레포, 켄 맥멀런, 타카미네 고, 트린 T. 민하, 페드로 코스타,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 청년예술청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탸 베게노프)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총 12명/팀)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슈 차웨이, 스카이 호핀카, 아노차 수위차쿤퐁, 아밋 두타, 안젤라 수, 요아킴 쇠스터, 제인 진 카이젠, 정위안, 타마르 귀마레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

기본 정보

- 사업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송가현
(02-2124-8975 / kahyun@seoul.go.kr)
- 홍보문의: 주무관 권대희(02-2124-8945 / kwon.daehee@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아래 링크 접속 및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e5S9Cg0NdVU0jQKRnzPVD1Go1U69GRW?usp=sharing>